

수도권 지역의 연령에 따른 전통 떡류의 이용현황

신민자^{1†} · 김옥선¹ · 정재홍²

¹경희대학교 조리과학과, ²안산공과대학 호텔조리과

Consumption of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by Age in the Metropolitan Area

Min-Ja Shin^{1†}, Ok-Sun Kim¹ and Jae-Hong Jung²

¹Dept. of Culinary Science and Arts, Kyunghee University, Seoul 130-701, Korea

²Dept. of Hotel Culinary Arts, Ansan Technical College, Ansan 425-792,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sumption patterns of the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by general public.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511 resi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Data were analysed by t-test, ANOVA and Chi-square.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Generally, the rice cake was recognized as a "good food" in all age groups. The reasons why they prefer the rice cakes were "It tastes good" and "It has been eaten from the past." The time when they use the rice cake was mostly the holidays and events(or festivities). The female had more experiences than the male in making it. Songpyeon took the first place for them to have experiences to make. The consumption frequencies of rice cake were the more in females than in males. The higher the age, the more frequently they consumed. Injeolmi was the one which was purchased the most frequently. The place that they usually buy from was the rice cake shop around their house. The most important factor considering when they buy it was the taste. The reason why the frequency the rice cakes made for their direct consumption at home is gradually decreasing was "It is troublesome to make", and "It is complicated to make."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rice cake, consumption, age, recognition, metropolitan area.

서 론

우리 나라는 농경을 가장 중요한 생업으로 하였으며 조리
와 가공법에서도 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곡물음식이 전통음
식으로 계승되어 왔다(Jung & Shin 2004). 그 중에서도 떡은
농경문화의 정착시대부터 발달된 토착성과 전통성이 가장
깊은 음식으로 예로부터 빈례, 제례를 비롯하여 대소연의, 농
경의례, 토속신앙을 배경으로 한 각종 행제, 무의 또는 계절
에 따라 즐기는 시식, 절식 등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강 등
2000).

떡은 멥쌀, 찰쌀 등의 곡물을 기본 재료로 쓰고 곡류, 채소
류, 과일류, 버섯류 등을 부재료로 혼합하여 다양하게 만들어
지며(Lee JS 1998) 재료의 배합비율에 따라 영양적으로 우수
하며 건강식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전통
음식이다(윤서석 1996, 김상순 1985, 장지현 1993, 강인희 등

2000, Lee & Maeng 1987, Kim & Kim 1988, 이효지 1999).

이러한 전통 떡류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핵가족화와 더불어
어 집에서 직접 만드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고 가정의례의 변
천으로 의례음식이 간소화되며, 식품공업의 발달과 제과 제
빵 기술의 발달로 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
럽게 떡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는 경향이어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김향숙 2002).

떡류에 대한 인식과 이용현황에 관한 선행 연구들(Youn
JS 1989, Jung HS 1992, Hong et al 2000, Lee et al 1991, Kim
YS 1993, Oh MY 1995, Jang EJ 1995, Kim HH 2002)은 많이
있으나, 이들 논문의 대상은 초·중·고교 학생 또는 그들의
어머니로 한정된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떡류의 기호도, 인지
도, 이용현황을 연구한 논문의 대부분이 한국 전통음식속의
떡류를 다룬 부분이 많은 편이다(Lee et al 1991, Jang EJ
1995, Oh MY 1995, Kang & Lee 2000, Yoon JY 2000).

근래에 와서는 떡의 이용이 행사 때 이외에도 식사대용이
나 간식으로의 이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Corresponding author : Min-Ja Shin, Tel: +82-2-961-0858,
E-mail : Shin@khu.ac.kr

하여 이용 현황에 관하여 연령별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전통 떡류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식과 선호도가 일반적인 환경이나 이용실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 보고, 각 세대간의 떡류의 이용현황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 떡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일반인들의 떡에 대한 인식 및 이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여를 대상으로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2004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5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523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분석이 가능한 511부(91%)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 및 설문지 개발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환경, 떡류에 대한 성별·연령별에 따른 인식 및 이용현황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하여 고안된 설문 문항과 타 연구자(Kim KY 1988, Jung & Shin 2004, Jung HS 2002)에 의해 고안된 설문 문항 중에서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일부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2004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비 설문지를 배부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보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반 환경에 관한 내용은 5문항으로 하였고, 떡에 대한 인식과 이용현황에 관한 내용은 총 24종의 떡류를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떡류에 대한 인식과 이용현황에 관해서 떡류를 대체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떡의 이용시기, 구입장소, 떡을 집에서 만들어 본 경험, 시기, 그 종류 등의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의 통계처리

본 연구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환경, 떡류에 대한 인식과 이용현황 등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떡류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이용현황에 어떠한 유의점이 있는지는 교차분석

(Chi-Square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족형태, 직업 및 가족의 월평균 수입 등은 Table 1과 같았다.

성별에서는 여자 50.5%, 남자 49.5%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21.3%, 20대 22.1%, 30대 20.4%, 40대 19.4%, 50대 이상 16.8%로 2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전체의 8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확대가족은 11.9%로 핵가족이 현저하게 많았다.

직업은 전문기술직 12.3%, 영업/서비스직 11.2%, 기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ercentage (%)
Gender	Male	253	49.5
	Female	258	50.5
Age(yr)	10≤	109	21.3
	20~29	113	22.1
	30~39	104	20.4
	40~49	99	19.4
	50≤	86	16.8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450	88.1
	Extended Family	61	11.9
Job	Student	171	33.5
	Laborer	8	1.6
	Office work	37	7.2
	Service	57	11.2
	Technician	63	12.3
	Achninistrator	12	2.3
	House keeper	115	22.5
	Etc	48	9.4
Income (₩ 10,000)	<100	58	11.4
	100~150	57	11.2
	150~200	82	16.0
	200~250	85	16.6
	250<	229	44.8
Total		511	100.0

9.4%, 사무관리직 7.2%, 행정/관리직 2.3%, 생산/노무직 1.6%로 직장인 44.0%, 학생 33.5%, 주부 22.5%이었다. 직업으로 학생이 전체직업의 33.5%를 차지하는 것은 설문 조사시 중·고등학생의 10대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에 기인한 것 같다.

월수입은 250만원 이상 44.8%, 200~250만원 16.6%, 150~200만원 16.0%, 100만원 미만 11.4%, 100-150만원 11.2%로 25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2. 떡류에 대한 인식

떡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인식은 Table 2와 같이 '매우 좋은 음식이다', '좋은 음식이다', '보통이다', '좋지 않은 음식이다', '매우 좋지 않은 음식이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좋지 않은 음식이다', '매우 좋지 않은 음식이다'라고 한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좋은 음식이다(좋은 음식이다+매우 좋은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95.7%로 우리나라 떡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50대 이상은 100%가 떡에 대하여 '좋은 음식이다'라고 하였다.

떡류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p<0.01$)가 있었다.

10대와 30대는 각각 49.5%, 50.0%가 좋은 음식이라고 하였으며, 20대,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53.1%, 52.5%, 69.8%가 매우 좋은 음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떡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편으로 떡의 대중화 및 소비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건강에 좋은 기능성 떡 등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떡류에 대한 선호

떡류를 선호하는 이유는 Table 3과 같이 44.8%가 '맛이 좋

아서'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이 '예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39.8%, 영양이 풍부해서, '모양과 색이 좋아서', '건강에 좋으므로' 등의 순이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각각 유의적인($p<0.05$, $p<0.001$)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의 경우 남녀 모두 '맛이 좋아서'가 각각 46.2%, 43.4%, '예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가 각각 43.0%, 36.7%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71.8%), 20대(56.0%)는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좋아하는 이유로 '맛이 좋아서'라고 답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으며, 또한 대상은 다르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Lee NS 1993)의 연구에서도 좋아하는 이유로 맛이 좋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비슷했다. 또한 30대(51.5%), 40대(57.6%), 50대 이상(50.5%)은 '예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이 '맛이 좋아서'라고 하였다. 이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Lee et al(1991)의 연구에서도 떡을 좋아하는 이유로 '고유의 전통음식이므로', '맛이 좋아서' 등과 같은 경향이였다.

이러한 결과 성별로는 '맛이 좋아서', '예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10대 및 20대의 경우 '예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적어, 이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떡의 이용시기

떡류의 이용 시기는 Table 4와 같이 43.2%가 '명절이나 행사 때 이용' 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이 '보통 때 가끔 이용한다.' 31.3%, '특별한 날을 가리지 않고 자주 이용한다.' 21.1%의 순이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Jung HS 1992)의 연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et al(2004)의 연구에서

Table 2. A survey of people's perceptonal of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Categories	Sex		Age					Total	
	Male	Female	10~19	20~29	30~39	40~49	50≤		
Perceptonal of rice cakes	Very well food	129 51.0%	142 55.0%	50 45.9%	60 53.1%	49 47.1%	52 52.5%	60 69.8%	271 53.0%
	Well food	113 44.7%	105 40.7%	54 49.5%	43 38.1%	52 50.0%	43 43.4%	26 30.2%	218 42.7%
	So-so	11 4.3%	11 4.3%	5 4.6%	10 8.8%	3 2.9%	4 4.0%	-	22 4.3%
Total	253	258	109	113	104	99	86	511	
		100%							
χ^2, p value	.868, .648		22.146**, .005						

** : $p<0.01$.

Table 3. A reason for liking on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Divison	Sex		Age					Total
	Male	Female	10~19	20~29	30~39	40~49	50≤	
Well nutritious	8 3.2%	25 10.0%	4 3.9%	8 7.3%	2 1.9%	2 2.0%	17 19.8%	33 6.6%
Have been eating	107 43.0%	92 36.7%	15 14.6%	31 28.4%	53 51.5%	57 57.6%	43 50.0%	199 39.8%
Have good shape and color	10 4.0%	18 7.2%	7 6.8%	8 7.3%	5 4.9%	3 3.0%	5 5.8%	28 5.6%
Tasty delicious	115 46.2%	109 43.4%	74 71.8%	61 56.0%	41 39.8%	27 27.3%	21 24.4%	224 44.8%
Be healthful	9 3.6%	7 2.8%	3 2.9%	1 .9%	2 1.9%	10 10.1%	- -	16 3.2%
Total	249	251	103	109	103	99	86	500
			100%					
χ^2, p value	12.577*, .014			121.117***, .000				

** : $p < 0.01$.

Table 4. Time of use the rice cakes at home

Categories	Sex		Age					Total
	Male	Female	10~19	20~29	30~39	40~49	50≤	
Holidays or events	133 52.6%	88 34.1%	38 34.9%	56 49.6%	50 48.1%	39 39.4%	38 44.2%	221 43.2%
Frequently	34 13.4%	74 28.7%	19 17.4%	18 15.9%	28 26.9%	20 20.2%	23 26.7%	108 21.1%
Receive quest	2 .8%	5 1.9%	1 .9%	1 .9%	1 1.0%	1 1.0%	3 3.5%	7 1.4%
Sometimes occasionally	72 28.5%	88 34.1%	44 40.4%	35 31.0%	25 24.0%	34 34.3%	22 25.6%	160 31.3%
Nearly no use	12 4.7%	3 1.2%	7 6.4%	3 2.7%	- -	5 5.1%	- -	15 2.9%
Total	253	258	109	113	104	99	86	511
			100%					
χ^2, p value	32.218***, .000			29.690*, .020				

* : $p < 0.05$, *** : $p < 0.001$.

도 대부분 명절이나 제사 등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고 말해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였다.

성별($p < 0.001$), 연령($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데 성별의 경우 남자는 '명절이나 행사 때 이용한다'가 52.6%로 가장 많았으나, 여자는 '명절이나 행사 때 이용한다'(34.1%)와 '보통 때 가끔이 이용한다'(34.1%)가 각각 동일하게 많았으며, '손님 접대 시 이용한다'(1.9%)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1.2%)는 적었다.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40.4%가 '보통 때 가끔 이용한다'라고 하였으며,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은 '명절이나 행사 때 이용한다'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떡은 명절 및 행사 때 먹는 음식으로 인식되어 있

지만, 10대의 경우 '보통 때 가끔 이용한다'가 가장 많아 다른 연령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0대의 경우 '떡류=명절음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다른 연령층보다 강함을 알 수 있다.

5. 떡의 구입장소

떡류를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Table 5와 같이 76.0%가 인근 떡집이라 하였고, 그 다음으로 백화점 14.0%, 대형마트 9.6% 기타, 슈퍼마켓 등의 순이었다.

성별, 연령에 따라서는 모두가 유의성($p < 0.05$)이 있었는데 성별의 경우 남자 75.3%와 여자 76.6%가 '인근 떡집'에서 떡

Table 5. Place of purchasing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Categories	Sex		Age					Total	
	Male	Female	10~19	20~29	30~39	40~49	50≤		
Place of purchase	Local mills	189 75.3%	198 76.7%	88 80.7%	88 79.3%	76 73.1%	73 73.7%	62 72.1%	387 76.0%
	Department	32 12.7%	19 7.4%	7 6.4%	5 4.5%	12 11.5%	15 15.2%	12 14.0%	51 10.0%
	Large market	16 6.4%	33 12.8%	7 6.4%	14 12.6%	14 13.5%	9 9.1%	5 5.8%	49 9.6%
	Supermarket	4 1.6%	3 1.2%	1 .9%	1 .9%	- -	1 1.0%	4 4.7%	7 1.4%
	The others	10 4.0%	5 1.9%	6 5.5%	3 2.7%	2 1.9%	1 1.0%	3 3.5%	15 2.9%
	Total	251	258	109	111	104	99	86	509
			100%						
χ^2, p value	11.136*, .025		27.632*, .035						

* : $p < 0.05$.

을 주로 구입하며, 그 다음으로 남자는 '백화점'(12.7%), 여자는 '대형마트'(12.8%)에서 구입하고 있었다.

연령에 있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근 떡집'(76.0%)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0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각각 동일하게 20대와 30대는 '대형마트'에서 각각 12.6%, 13.5%, 40대와 50대 이상은 백화점 순이었다.

'인근 떡집'에서 떡을 주로 구입하는 것은 주거지역 근처 떡집에서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Jung & Shin(2004)의 연구에서 떡류를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재래시장, 인근 동네 방앗간, 대형 마트, 백화점, 기타, 슈퍼마켓 순으로 조사된 것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1993)에서 구입 장소로서 동네시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6. 떡 구입시 떡 종류

떡 구입시 떡 종류는 Table 6과 같이 인절미가 4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송편 17.5%, 시루떡, 가래떡, 절편/경단류, 무지개떡, 기타, 콩찰떡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적인($p < 0.001$)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남자 41.2%, 여자 43.1%가 '인절미'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 18.1%, 여자 16.9%가 '송편'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인절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대는 가래떡, 20대는 시루떡/경단, 30대,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송편이었다.

구입하는 떡의 경우, 대부분 인지도 및 기호도가 높은 종류로서,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즐겨찾을 수 있는 떡 종류들이었다.

7. 떡 구입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떡류 구입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Table 7과 같이 69.2%가 '맛'을 중요시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위생/안전성 18.9%, 가격 5.9%, 포장상태 9.5%, 영양성 2.6%의 순이었다. 이는 Lee et al(2002)과 Jung & Shin(2004)의 맛, 외관, 가격의 순으로 중요시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떡류 구입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하여는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p < 0.05$)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67.6%, 여자 70.7%가 떡 구입시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자 22.9%와 여자 14.8%가 '위생/안전성'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위생'에 대해서 10대 21.1%, 20대 14.3%, 30대 20.2%, 40대 28.6%, 50대 이상 9.3%이었다. 이는 Lee et al(2002)의 맛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연구결과와 Jung & Shin(2004)의 품질(맛)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삶의 질 향상으로 식품 구매 시 '맛'을 우선으로 하고 '위생/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8. 떡을 집에서 만들어 본 경험, 시기, 그 종류

떡을 집에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Table 8과 같이 82.0%가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18.0%만이 '집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성별($p < 0.01$)과 연령($p < 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남자(76.6%)보다 여자(87.2%)가 떡을 만든 경험이 더 많았다. 연령에 따

Table 6. Kind of purchasing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Categories	Sex		Age					Total	
	Male	Female	10~19	20~29	30~39	40~49	50≤		
Kind of rice cakes	Songpyun	44 18.1%	43 16.9%	15 14.0%	16 14.8%	24 23.8%	19 19.4%	13 15.5%	87 17.5%
	Injulmi	100 41.2%	110 43.1%	37 34.6%	34 31.5%	49 48.5%	44 44.9%	46 54.8%	210 42.2%
	Julpyun	9 3.7%	21 8.2%	3 2.8%	8 7.4%	5 5.0%	7 7.1%	7 8.3%	30 6.0%
	Sirooduk	28 11.5%	18 7.1%	5 4.7%	17 15.7%	8 7.9%	10 10.2%	6 7.1%	46 9.2%
	Soemuriduk	2 .8%	3 1.2%	- -	- -	- -	2 2.0%	3 3.6%	5 1.0%
	Garaeduk	18 7.4%	16 6.3%	17 15.9%	6 5.6%	7 6.9%	3 3.1%	1 1.2%	34 6.8%
	Kongchalduk	6 2.5%	10 3.9%	4 3.7%	1 .9%	3 3.0%	4 4.1%	4 4.8%	16 3.2%
	Moojigaeduk	10 4.1%	12 4.7%	8 7.5%	3 2.8%	2 2.0%	8 8.2%	1 1.2%	22 4.4%
	Kyungdannew	17 7.0%	13 5.1%	13 12.1%	17 15.7%	- -	- -	- -	30 6.0%
	Others	9 3.7%	9 3.5%	5 4.7%	6 5.6%	3 3.0%	1 1.0%	3 3.6%	18 3.6%
	Total	243	255	107	108	101	98	84	498
		100%							
	χ^2, p value	9.211, .418			108.851***, .000				

*** : $p < 0.001$.

Table 7. Important factors of purchasing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Categories	Sex		Age					Total	
	Male	Female	10~19	20~29	30~39	40~49	50≤		
Important factors	Taste	171 67.6%	181 70.7%	69 63.3%	83 74.1%	69 66.3%	60 61.2%	71 82.6%	352 69.2%
	Price	13 5.1%	17 6.6%	10 9.2%	5 4.5%	5 4.8%	3 3.1%	7 8.1%	30 5.9%
	Sanitation	58 22.9%	38 14.8%	23 21.1%	16 14.3%	21 20.2%	28 28.6%	8 9.3%	96 18.9%
	Nutritive	4 1.6%	9 3.5%	3 2.8%	3 2.7%	3 2.9%	4 4.1%	- -	13 2.6%
	Packing condition	7 2.8%	11 4.3%	4 3.7%	5 4.5%	6 5.8%	3 3.1%	- -	18 3.5%
	Total	253	256	109	112	104	98	86	509
	100%								
χ^2, p value	7.779, .100			27.542*, .036					

* : $p < 0.05$.

라서는 10대(73.4%), 20대(77.7%), 40대(80.8%), 50대 이상(97.7%) 등 대부분 70% 이상이 떡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다.

집안에서 떡을 만들어 본 시기는 Table 9와 같이 '명절'때가 9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돌/백일 2.9%, 생일, 제

Table 8. Experience of making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according to their sex and ages

Categories	Sex		Age					Total	
	Male	Female	10~19	20~29	30~39	40~49	50≤		
Experience of making	Have	193 76.6%	225 87.2%	80 73.4%	87 77.7%	87 83.7%	80 80.8%	84 97.7%	418 82.0%
	Have not	59 23.4%	33 12.8%	29 26.6%	25 22.3%	17 16.3%	19 19.2%	2 2.3%	92 18.0%
Total	252		258	109	112	104	99	86	510
			100%						
χ^2, p value		9.728**, .002			21.452***, .000				

** : $p < 0.01$, *** : $p < 0.001$.

Table 9. Time and kind of making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according to their sex and ages

Categories	Sex		Age					Total	
	Male	Female	10~19	20~29	30~39	40~49	50≤		
Time of making Korea rice cakes	Festival days	202 93.1%	217 94.3%	85 97.7%	92 93.9%	83 87.4%	77 92.8%	82 97.6%	419 93.7%
	Anniversary/ Hundred days	5 2.3%	8 3.5%	-	1 1.0%	6 6.3%	4 4.8%	2 2.4%	13 2.9%
	Birthday	6 2.8%	2 .9%	-	4 4.1%	3 3.2%	1 1.2%	-	8 1.8%
	Wedding days	2 .9%	-	-	-	1 1.1%	1 1.2%	-	2 .4%
		2	3	2	1	2	-	-	5
	Sacrifice	1.0%	1.3%	2.2%	1.0%	2.1%	-	-	1.1%
Total	217		230	87	98	95	83	84	447
			100%						
χ^2, p value		6.857, .231			26.749, .142				
Kind of making Korean rice cakes	Songpyun	186 86.9%	192 82.1%	69 79.3%	83 83.8%	81 84.4%	75 91.5%	70 83.3%	378 84.4%
	Injulmi	12 5.6%	17 7.3%	9 10.3%	5 5.1%	5 5.2%	3 3.7%	7 8.3%	29 6.5%
	Julpyun	1 .5%	3 1.3%	-	1 1.0%	1 1.0%	-	2 2.4%	4 .9%
	Sirooduk	7 3.3%	13 5.6%	3 3.4%	4 4.0%	5 5.2%	4 4.9%	4 4.8%	20 4.5%
	Kongchalduk	1 .5%	1 .4%	1 1.1%	1 1.0%	-	-	-	2 .4%
	Moojigaeduk	-	1 .4%	-	-	-	-	1 1.2%	1 .2%
	Kyungdannew	-	2 .9%	2 2.3%	-	-	-	-	2 .4%
	Others	7 3.3%	5 2.1%	3 3.4%	5 5.1%	4 4.2%	-	-	12 2.7%
	Total	214		234	87	99	96	82	84
			100%						
χ^2, p value		6.210, .515			31.802, .283				

Table 10. The main reason for decreasing frequency to make rice cake at home

Categories	Sex		Age					Total	
	Male	Female	10~19	20~29	30~39	40~49	50≤		
Reason	Busy	48 19.0%	34 13.3%	16 14.8%	19 16.8%	10 9.6%	16 16.2%	21 24.7%	82 16.1%
	Annoying	96 37.9%	94 36.7%	39 36.1%	42 37.2%	40 38.5%	36 36.4%	33 38.8%	190 37.3%
	Don't know how to make	48 19.0%	57 22.3%	26 24.1%	21 18.6%	22 21.2%	24 24.2%	12 14.1%	105 20.6%
	Complicated method	53 20.9%	59 23.0%	20 18.5%	26 23.0%	31 29.8%	18 18.2%	17 20.0%	112 22.0%
	Others	8 3.2%	12 4.7%	7 6.5%	5 4.4%	1 1.0%	5 5.1%	2 2.4%	20 3.9%
	Total	253	256	108	113	104	99	85	509
			100%						
χ^2, p value		4.287, .369		19.547, .241					

레, 결혼 때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명절이라고 응답하여 추석이나 정월 명절 같은 때에 집에서 떡을 만들어 본 것으로 사료된다.

주로 만들어본 떡으로는 송편이 8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인절미, 시루떡 등이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송편을 만들어 본 경험이 높았으며, 40대가 송편을 빚은 경험이 91.5%로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색은 떡은 송편이라고도 하여, 추석 때 가족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떡을 만드는 우리 전통음식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9. 떡을 집에서 만들어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

예전에 비하여 떡을 집에서 만들어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Table 10과 같이 '귀찮아서'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서' 22.0%,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16.1%, 기타 3.9%의 순이었다.

성별과 연령 따라서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는데,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37.9%, 여자 36.7%가 '귀찮아서'라고 했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 20.9%, 여자 23.0%가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서'라고 하였다.

연령에 있어서도 모든 연령대가 '귀찮아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0대와 40대는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서'이고 20대, 30대, 50대 이상은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서'라고 하였다.

가장 많은 '귀찮아서'라는 이유는, 떡이라는 음식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만

드는 방법이 복잡해서'와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서'도 많았는데, 이는 과거 전통적으로 여성을 통해 전수되었던 떡의 제조 방법을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인하여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일반인 511명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떡류에 대한 인식과 이용현황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떡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음식이다(좋지 않은 음식이다+매우 좋지 않은 음식이다)'라고 한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95.7%가 '좋은 음식이다(좋은 음식이다+매우 좋은 음식이다)'라고 하였으며, 50대 이상은 100%가 '좋은 음식이다'라고 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p < 0.01$)가 있었다.

10대와 30대는 각각 49.5%, 50.0%가 '좋은 음식'이라 하였고 20대, 40대, 50대 이상은 각각 53.1%, 52.5%, 69.8%가 '매우 좋은 음식'이라고 하였다.

둘째, 떡을 선호하는 이유는 44.8%가 '맛이 좋아서', 그 다음이 '예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39.8%)라고 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각각 유의적인($p < 0.05$), ($p < 0.001$) 차이가 있었는데 남녀 모두 '맛이 좋아서'가 각각 46.2%, 43.4%, '예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각각 43.0%, 36.7%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 20대는 '맛이 좋아서'가 가장 많았고 30대 이상에서는 '예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라고 하였다.

셋째, 떡의 이용 시기는 43.2%가 '명절이나 행사 때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이 '보통 때 가끔 이용한다(31.3%)'고 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각각 유의성($p<0.001$), ($p<0.05$)이 있었는데 남자는 '명절이나 행사 때 이용한다' (52.6%)라고 하였으며 여자는 '명절이나 행사 때 이용한다'와 '보통 때 가끔 이용한다(34.1%)'가 각각 동일하게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40.4%가 '보통 때 가끔 이용한다'라고 하였으며, 20대~50대 이상까지는 모두 '명절이나 행사 때 이용한다'가 가장 많았다.

넷째, 떡의 구입 장소는 76.0%가 인근 떡집이라 하였고 그 다음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순이었다.

성별, 연령에 따라서는 모두가 유의성($p<0.05$)이 있었는데 남·여 모두가 '인근 떡집'에서 떡을 주로 구입하며, 그 다음으로 남자는 백화점, 여자는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고 있었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인근떡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0대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각각 동일하게, 20대, 30대는 대형마트, 40대와 50대 이상은 백화점 순이었다.

다섯째, 떡 구입시 떡 종류는 인절미(4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송편, 시루떡, 가래떡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성이 없었고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성($p<0.001$)이 있었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인절미'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10대는 가래떡, 20대는 시루떡, 30~50대 이상은 송편이었다.

여섯째, 떡 구입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69.2%가 '맛'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위생/안전성', '가격', '포장상태', '영양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성이 없었고, 연령대서는 유의성($p<0.05$)이 있었다.

일곱째, 떡을 집에서 만들어 본 경험은 82.0%가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각각 유의성($p<0.01$), ($p<0.001$)이 있었다.

여자(87.2%)가 남자(76.6%)보다 떡을 만든 경험이 더 많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떡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다. 떡을 만든 것은 '명절'때가 9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돌/백일, 생일, 제례, 결혼 때였다.

만들어 본 떡류는 송편이 84.1%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인절미, 시루떡 등이다.

여덟째, 떡을 집에서 만들어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서',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서'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보아 우리 나라 전통 떡류의 품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맛과 형태, 위생적이면서

도 안정성이 있고 한국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현대적인 포장(Lee YS 2002)을 갖춘 떡류를 개발하고, 표준화된 조리법과 현대적인 기구를 사용하여 제조해야 하겠다. 또한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문헌

- 강인희, 조후중, 이춘자 (2000) 한국음식대관 제 3권 1부 떡. 한국 문화재 보호재단편. 한림출판사. p 11.
- 김상순 (1985) 한국 전통 식품의 과학적 고찰. 숙명여대 출판부. p 331.
- 김향숙 (2002) 떡·한과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리과학적 고찰. 한국조리과학회 추계학술 심포지움. p 5.
- 윤서석 (1996) 한국음식(역사와 근거). 수확사. p 36.
- 이효지 (1999) 전통 떡류의 과학적 고찰과 산업화과제. 한국조리과학회 춘계학술 심포지움. p 4.
- 장지현 (1983) 전통식품-그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미래-전통 식품의 새로운 인시과 바람직한 발전. 제 1회 인제 식품 과학 포럼 논총, 인제대학교 p 47.
- Hong KS, Baik SJ, Kim HS (2000)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in utilization and preference for the commercial Korean traditional desserts.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9: 118-125.
- Jang EJ (1995)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Knowledge, dietary life behaviors and preference on Korean traditional foods-focus on housewives in Seoul area. *MS Thesis*. The Hanyang University of Korea.
- Jung HS (1992) A study on the preconception and field evaluation of the Han-gwa. *MS thesis*. The Sookmyung Woman's University of Korea.
- Jung HS, Shin MJ (2004) A study on the consumption of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by college students. *Korean J Food Cookery* 20: 30-31.
- Kang KO, Lee HJ (2000) A study on the housewives cognition and consumption pattern of Korean rice cake. *Korean J Soc Food Sic* 16: 505-510.
- Kim HH (2002) A study on the consumption patterns and preferences of Korean cookies of housewives in Daegu province.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2: 281-287.
- Kim YS (1993) A study on middle-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and preference of traditional food. *MS thesis*,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 Lee CH, Maeng YS (1987) A literature review on Korean rice cake. *Korean J Diet Culture* 2: 119-120.

- Lee HO, Rho SN, Kim KS, Lee SY, Lee BH, Park MJ (2002) Degree of preference and utility on rice cakes of college students. *Chung-Ang Journal of Human Ecology*, p 15.
- Lee JS (1998)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consumption pattern and preference of Korean rice cake. *Korean J Diet Culture* 13: 83-89.
- Lee NS (1993) A study on conception, preference, and consumption of Han-gwa. *MS thesis*. The Sookmyung Woman's university of Korea.
- Lee YN, Shin MK, Kim BN (1991)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traditional food. *Korean J Dietary Culture* 6: 71-80.
- Oh MY (1995)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Knowledge and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 *Master Thesis*. The Hanyang University of Korea.
- Yim KY, Kim SH (1998) A survey on the utilization of Korean rice cakes and the evaluation about their commercial products by housewives. *Korean J Diet Culture* 3: 163- 164.
- Yoon JS (1989)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Rice Cake-A Primary School Students-. *MS thesis*. Chungbuk University of Korea.
- Yoon JY (2000) Comparisom of children and mothers in opinion of rice cake. *Korean J Soc Food Sci*. 16: 548-556.
(2004년 10월 15일 접수, 2004년 11월 26일 채택)